

다루가치

몽골제국에서 정복, 복속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한 감독관



1 개요

다루가치는 몽골제국이 정복하거나 복속시킨 광범한 지역의 통치를 위해 파견된 감독관을 가리킨다. 몽골제국 초기에는 복잡한 관료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는데, 제국의 영토가 넓어지면서 물자 및 인구 관리 등을 위한 효율적인 “통치”가 이루어져야 했다. 칭기스칸은 특히 무슬림 상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정복 지역에 다루가치들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다루가치는 제국의 대칸을 대리하여 파견된 사람으로, 상당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정복, 복속 지역의 감독과 통치 감시 등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한문 사료에서는 달로화적(達魯花赤)으로 주로 표기되는데, 이는 다루가치라는 발음을 한자로 적은 것이다. 몽골제국 초기의 통치를 담당했던 다루가치는 이후 제국이 여러 지역의 정치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에도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감독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다루가치의 의미

다루가치의 어원(語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첫 번째는 다루가치라는 몽골어 직함이 ‘다루가’라는 몽골어 동사의 변형된 형태에 접미사 ‘치’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라고 보는 것이다. 몽골어의 접미사 ‘치’는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이는 우리말에도 영향을 끼쳐 ‘장사치’, ‘벼슬아치’ 등의 단어에도 그 뜻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다루가’의 원래 동사 형태인 ‘다루쿠’는 ‘누르다, (도장을) 찍다, 진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루가치는 ‘누르는 사람, (도장을) 찍는 사람, 진압하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루가치가 몽골어의 ‘다루가’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명칭이라는 주장이다. 몽골어 명사 ‘다루가’는 ‘우두머리, 수장, 대장’을 의미한다. 여기에 접미사 ‘치’가 붙었다고 한다면 ‘우두머리가 된 사람’ 정도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두 가지 중 어떠한 해석을 선택하더라도 다루가치가 중요한 사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직책을 의미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몽골제국이 피정복 지역의 정교한 행정 제도를 수용하기 이전부터 등장한 ‘몽골식’ 감독관이었다는 점에서 다루가치가 지닌 역사적 의미는 중요하다.

3 몽골제국 다루가치의 역할과 위상

칭기스칸이 건국한 몽골제국은 초기에는 전형적인 유목제국으로, 생존을 위해 농경지역을 약탈했다. 물론, 칭기스칸이 선조(先祖)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금(金)을 주된 목표로 삼았던 측면도 있지만 굳이 금을 멸망시켜서 그 지역을 정복하여 통치하려는 의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금과 화의를 맺고 물자를 확보한 뒤에는 북쪽의 본거지로 돌아가는 패턴을 반복했던 것이다. 그런데 금이 칭기스칸과 화의를 맺은 이후에 수도를 지금의 북경(北京)에서 개봉(開封)으로 옮기자 칭기스칸은 이를 화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다시 침입하여 지금의 북경 일대를 점령했다. 금이 이미 남쪽으로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 북쪽은 통치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이 지역을 점령한 몽골제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안정적인 관리를 시행해야 했다.

이렇게 몽골제국이 점령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관료가 바로 다루가치이다. 몽골은 농경 지역의 통치 방식이나 관료제도 등을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점령 지역의 통제를 위해서는 현지의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통치를 맡기면서도 반란, 이탈이 일어나는지를 감시하고 조세나 공물 징수를 감독하기 위한 사람을 보내야 했다. 그 임무를 맡은 것이 다루가치였다. 칭기스칸은 무슬림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우선 금이 버리고 떠난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 다루가치를 파견하였다. 초기 다루가치의 임무는 주로 군사 방면에 집중되었지만 제국이 점점 확장되면서 재정, 민정 등 군사 이외의 행정에도 감독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다루가치의 권한은 매우 막강했고, 대칸의 대리인이라는 위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루가치에게 저항하는 것은 제국의 감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같았다. 이러한 다루가치는 몽골제국의 확대에 따라 점령지인 중앙아시아, 러시아, 서아시아 등에도 설치되었고, 몽골에 복속한 지역인 고려, 안남(安南, 현재 베트남의 북부) 등에도 일정 기간 설치되었다.

몽골제국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제국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몽골인들은 현지에 존재하고 있었던 제도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과 몽골 일대를 다스렸던 쿠빌라이는 몽골식의 통치 체제와 중국의 복잡한 행정 체계를 결합한 방대한 관료 제도를 구축했고, 여러 관청에 다루가치를 감독관으로 배치하였다. 이 단계가 되면, 다루가치는 쿠빌라이가 설계한 제국 행정 체계의 일원으로 편입되어가

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다루가치는 중국식 관료 제도의 다른 직함으로 대체되지 않았고, 제국이 몰락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4 고려에 배치된 다루가치의 역사

몽골제국의 고유한 제도이자 직함인 다루가치는 고려의 역사에도 등장하고 있다. 몽골의 군대가 고려와 처음으로 마주친 것은 1218년 강동성(江東城) 전투에서였다. 강동성을 점거한 거란족 일당을 진압하기 위해 몽골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강동성까지 오면서 고려-몽골 연합군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고려-몽골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자, 이때부터 몽골은 고려에게 무리할 정도의 공물(貢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미 몽골은 고려를 복속한 국가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몽골은 이때 고려에 다루가치를 파견하지는 않았다. 아직 몽골제국에서도 다루가치는 이제 막 시작되는 제도였고, 칭기스칸이 1220년대 초에 중앙아시아를 정복하면서 중앙아시아에도 다루가치를 처음 설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몽골이 사신을 파견하면서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고 무례하게 행동하자 고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225년에 공물을 가지고 몽골로 돌아가던 사신 저고여(著古與)가 피살되자 몽골은 고려의 소행임을 의심하였고 이에 양국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관련사료](#) 이는 앞으로 전개될 고려와 몽골 사이의 전쟁의 서막이 되는 사건이었다.

1227년 칭기스칸이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 1229년 우구데이가 즉위하면서 몽골제국의 정복이 재개되었다. 이때 몽골은 저고여가 피살된 것을 구실로 삼아 고려에 침입했다. 1231년 8월, 살리타(撒禮塔)가 이끄는 몽골군이 함신진(咸新鎭)을 포위하고 철주(鐵州)를 공격한 것이 침입의 시작이었다. [관련사료](#) 고려의 병사들이 대항하였지만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2월이 되면 몽골 군대가 고려의 수도 개경 인근까지 진격해 왔기 때문에 고려는 서둘러 강화를 맺고자 했다. 몽골의 장수들에게 귀한 물자를 주고, 몽골의 사신을 위해 연회를 마련하는 등 몽골의 심기를 달래는 과정이 지속되었다. 고려와 몽골이 문서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 차이를 조율하면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결국 1232년 정월에 몽골 군대는 철수했다. [관련사료](#)

고려에 설치된 최초의 다루가치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무렵이다. 1232년 5월, 북계(北界)의 용강(龍岡)과 선주(宣州)에 몽골인 다루가치 4명이 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관련사료](#) 하지만 이보다 3개월 전인 2월에 도단(都旦)이라는 이름의 사신이 왔는데, [관련사료](#) 이 도단이 “나는 고려의 국사(國事)를 모두 통솔하기 위해 사신으로 여기에 왔으니 장차 궁궐[大內]에 들어가 거처하겠다.” [관련사료](#)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도단은 기록 그대로 ‘사신’이라기보다는 감독관인 다루가치에 더 근접한 인물이었다. 이처럼 몽골은 고려에 대한 1차 침입 이후 고려의 북계 지역을 중심으로 다루가치를 두어 고려의 동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고려의 집권자였던 최우(崔瑀)는 몽골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최우는 몽골과 상의하지 않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이때 고려에서는 몽골이 설치한 72명의 다루가치를 모두 죽였다고 하는데, 이는 고려 측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고 원나라의 기록에서만 확인된다. [관련사료](#) 몽골은 고려가 수도를 옮겨 섬으로 들어가고, 다루가치를 죽인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이에 살리타가 이끄는 2

차 침입이 일어났으나 1232년 12월 용인 처인성에서 살리타가 화살에 맞아 사망하면서 고려와 몽골은 장기전의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고려와 몽골의 전쟁은 1259년에 강화(講和)를 위해 몽골로 간 고려의 태자(뒷날의 고려 원종)와 쿠빌라이가 만나면서 비로소 종결되었다. 쿠빌라이는 자신이 대칸이 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고려의 태자가 자신에게 오자 이를 매우 기뻐하였다. 아직 대칸에 등극하기도 전에 고려의 태자가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복속해 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쿠빌라이는 사망한 고려 고종의 뒤를 이어 태자가 왕이 되도록 그를 돌려보냈고, 이때 수르다이(東里大)와 강화상(康和尚) 등이 다루가치가 되어 태자를 따라 고려로 들어왔다. [관련사료](#) ‘복속국’ 고려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시작된 것이다. 고려에 파견된 다루가치들은 주로 개경으로의 환도를 감독했는데, 얼마 후 쿠빌라이는 자신이 연호를 제정했다는 것을 알려오면서 아울러 다루가치들에게 돌아오라는 내용의 조서를 고려에 보냈다. [관련사료](#) 약 6개월 만에 다루가치가 폐지된 것인데, 이는 대칸 계승을 놓고 내전을 치르던 중인 쿠빌라이가 굳이 고려의 불만을 증대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269년에 무신 임연(林衍)이 원종을 폐위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분노한 쿠빌라이는 고려를 강하게 압박했다. 임연은 몽골 측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원종을 복위시켰고, 원종은 이듬해인 1270년에 몽골로 가서 쿠빌라이를 직접 만났다. 이때 원종은 쿠빌라이에게 군대와 다루가치를 고려에 파견해줄 것을 청하였다. 몽골의 힘을 빌려 무신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려는 원종의 의도였다. 결국 1270년 5월에 몽골은 툽토르를 고려의 다루가치로 임명했다. [관련사료](#) 이때부터 고려에 파견된 다루가치는 고려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고려의 다루가치는 1278년에 몽골로 돌아갔다. 이는 충렬왕과 쿠빌라이의 만남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었다. 충렬왕은 고려에 주둔하고 있는 몽골 병사들, 김방경(金方慶) 무고사건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쿠빌라이를 만났다. 쿠빌라이는 충렬왕의 여러 요구들을 들어주었는데, 이때 다루가치에 관한 사안도 제기되었다. 충렬왕은 쿠빌라이가 신임하는 인물을 고려의 다루가치로 임명해줄기를 원했지만, 쿠빌라이는 충렬왕이 잘 처리하면 된다고 하면서 더 이상 다루가치를 파견하지 않았다. [관련사료](#) 이는 쿠빌라이가 고려에 대해 신뢰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충렬왕이 쿠빌라이의 딸과 혼인을 하면서 제국 내에서의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취한 조치였다.

한편, 고려의 영역 내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들이 몽골에 항복하면서 고려의 동북쪽과 서북쪽의 변경 지역이 몽골의 영역이 되어 쌍성총관부(1258년)와 동녕부(1270년)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삼별초 진압 이후 몽골이 직접 관할하기 위해 탐라초토사(1273년)를 시작으로 이름만 바꾸어가며 여러 관부를 두었던 탐라에서는 고려와는 다른 행정 체계를 보유하게 되었다. 몽골의 영토인 쌍성총관부에는 당연히 다루가치가 설치되었는데 『고려사』의 기록에 “쌍성의 다루가치가 왔다”는 내용 정도가 확인된다.

[관련사료](#) 동녕부에도 마찬가지로 다루가치가 설치되었고, 『고려사』에서 “동녕부 다루가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관련사료](#) 탐라(제주도)는 몽골이 지정학적 위치, 목마장 설치 등의 원인으로 인해 중시했던 곳이었고, 삼별초 진압 이후 곧바로 탐라초토사(耽羅招討司)를 설치했다가 이후 탐라군민도다루가치총관부(耽羅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 탐라군민안무사(耽羅軍民安撫司)로 이름을 계속 바꾸었다.

[관련사료](#) 『고려사』에는 삼별초가 진압된 직후인 1273년 6월에 원에서 탐라에 다루가치를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관련사료](#) 1278년에 고려의 다루가치는 모두 철수했지만, 쌍성총관부와 동녕부의 영역 및 탐라는 몽골의 직할 영토였기 때문에 다루가치가 계속 존재했다. 1290년 동녕부가 고려에 반환되면

서 동녕부의 다루가치는 철수했다. 1294년에는 탐라 역시 명목상 고려에 반환되었으나 1301년 원이 탐라군민만호부(耽羅軍民萬戶府)를 설치하면서 다루가치가 존속되었다. 1356년 공민왕의 반원개혁으로 몽골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고 탐라가 고려의 직할령이 되면서 비로소 탐라의 다루가치도 폐지되었다. 1356년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면서 마침내 쌍성총관부의 다루가치도 사라지게 되었다.